



울주 향토사료관

Ulju Folk Museum

당선작 _ 남상득 정희원
(주)씨엔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고신리 446-1번지 외 2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주요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대지면적	4,240㎡
건축면적	843.73㎡
연면적	1,363.14㎡
건폐율	19.90%
용적률	28.88%
규모	지상 2층
발주처	울주군청 문화관광과
설계담당	백유미, 이정만, 권도연, 임경빈

Intro

사람과 자연이 하나가 되고, 사람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더불어 발전하고 체험하는 "울주 향토사료관"

계획의 기본방향

울주향토사료관은 자연에 동화된 건축을 구현하면서 다양한 공간적 장치를 활용하여 장소의 차별화를 상징적으로 구축하였다. 또한 토속문화를 매개로 하여 방문객들과의 다양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culture park"로서의 장소성을 강조하였다.

건축계획

가을녘 대지의 넉넉함과 풍성함, 여유로움을 상징하는 완만하고 소프트한 곡선을 기본 디자인 컨셉으로, 전체적으로 친환경적이면서 미래지향적, 긍정적인 모티브를 강조하였다. 단순하면서도 위로 뻗어나가는 듯한 유려한 곡선은 전체적인 외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과 동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주위를 리드하며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계획되었다.

건물의 배치는 동측의 주 진입도로에서의 인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변 녹지의 흐름에 동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광장과 건물을 중심으로 야외 전통체험공간, 민속공연장, 생태학습공간이 유기적으로 조성하여 방문객의 다양한 체험을 유도하고, 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극대화 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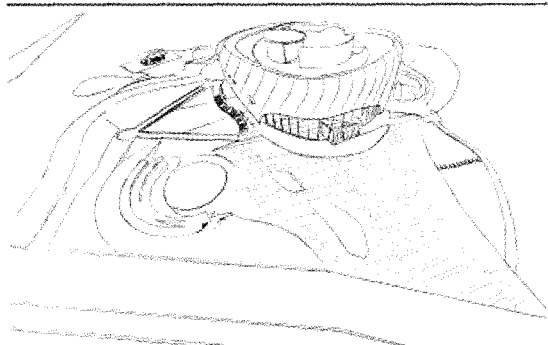
주출입구부터 전시공간을 지나 옥외전시공간까지 이르는 명쾌한 동선계획을 통해 전시장에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효율적인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중앙홀의 아트리움은 자연채광과 열린 조망을 제공하며 쾌적하고 개방된 공간을 조성하였다. 또한 옥탑층에는 옥상녹화와 더불어 감성적인 외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테마체험장을 계획함으로써 관람과 휴식의 자연스러운 연계성을 고려하였다.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하여 다 방향에서 영역별 진입이 가능한 Multi-Approach를 계획하여 내부에서 외부로, 외부에서 내부로의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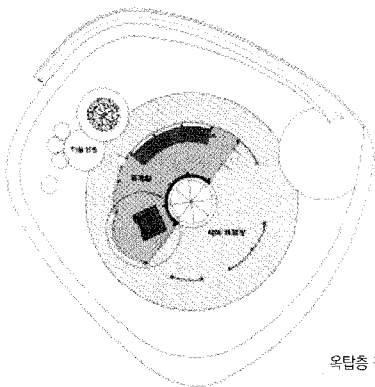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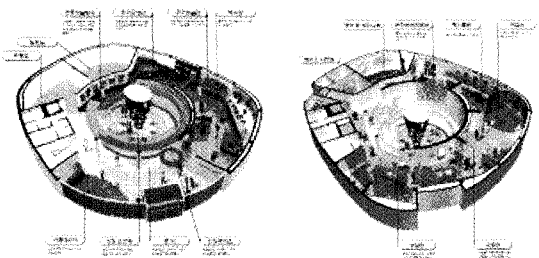
지상층에 설비관련시설들을 계획하여 환기에 유리하며 쾌적한 공간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투수하여 버려지는 빗물을 집수하여 조경 및 청소, 화장실 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비시설을 조성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였다.

건축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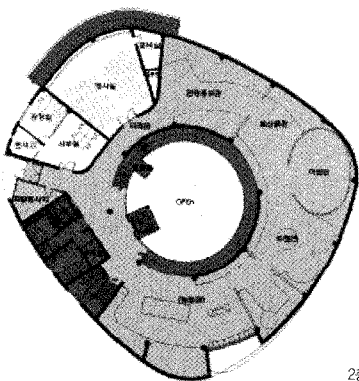
- 중앙홀에서부터 옥상정원까지 이어지는 수직동선을 통한 유기적인 전시계획 극대화
- 아트리움을 통한 자연채광과 환기 유도, 개방된 공간조성
-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외관의 유기적인 곡선과 자연친화적인 외장재를 적용
-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옥외공간 조성
- 통합된 공용공간계획으로 공간효율의 극대화
- 설비관련시설의 지상층 계획을 통한 에너지 절약과 환기에 유리한 쾌적한 공간 구성
- 자연자원 활용 : 우수를 집수하여 재활용가능한 설비 계획
-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한 Multi-Approach 계획
- 옥상정원 : 열전도율을 감소시켜 에너지 절약효과
- 옥외데크 : 내부와 외부의 자연스러운 연계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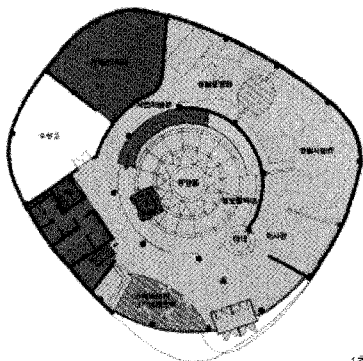
스케치



옥탑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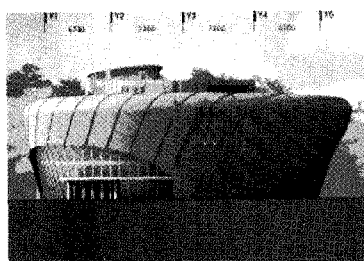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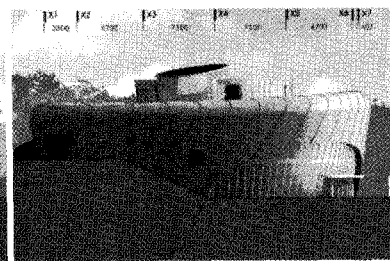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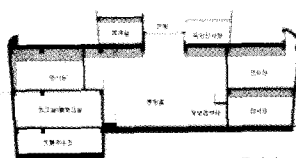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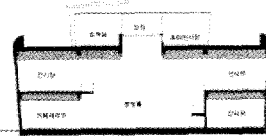
정면도



좌측면도



중단면도



횡단면도

